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3. 24(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지사,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내년 먹거리 발굴과 사업 설명도 놓치지 않을 것.....	대변인	
② **경북도,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자금지원 특별 행정명령 실행**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행정이행명령과 특별자금지원 설명	중소벤처기업과	
③ **코로나19 현장의 행복 비타민! 컵(cup)과일 인기!!** 경북도 9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도 생활치료센터에 컵과일 공급 바쁘고 답답한 코로나19 시설에서 산소 같은 역할 톡톡!!	농업정책과	
④ **경북 사회적 경제.... 희망을 나르다!** 기부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희망꾸러미' 1억3천만원 상당 제작·전달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성	사회적경제과	
⑤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긴급 특판 할인행사 실시** 2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울진 하나로마트에서 감자, 마나리 등 50톤 판매	친환경농업과	
⑥ **법인지방소득세 4월에 신고, 7월에 납부 하세요!**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직권! 그 외 지역은 신청에 의해!	세정담당관	
⑦ **경북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실국장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국장 대면회의 대신... 실국장 자리에서 PC로 영상회의	자치행정과	
⑧ **축산단체 및 관련업체, 코로나19 극복 성금 연이어 전달** 축산단체(양봉협회 경북도지회, 대구경상산란협의회)와 사료업체(우성사료, KCFEED)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전달	축산정책과	
⑨ **4-H 정신으로 지역사회 아픔 함께 나눠!** 경상북도4-H본부 및 연합회, 지역 방역소독 지원 및 기부금 전달	농업기술원	
⑩ **서울시 대구·경북 중증환자 수용... 감사합니다!** 살라리안 기업(주)산우파앤씨, 서울공동모금회로 200만원 상당의 살버위생용품 기증	중소벤처기업과	
⑪ **경북도, '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독도왜곡' 규탄** 일본, '독도,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합법적 편입' 등의 도발적인 기술 되풀이	독도해양정책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대변인		
		작 성 자	대변인	이 상 학	
			팀 장	이준희	주무관	장숙희
		연 락 처	054-880-4325		

이철우 지사,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 내년 먹거리 발굴과 사업 설명도 놓치지 않을 것.....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4일 도내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경상북도 및 도내 시군이 코로나19 대응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및 부처 설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경상북도는 2020년도 국비확보에 8조 8,024억원의 성과를 내는 동시에 2021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미래성장 동력 신산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국비확보를 준비해왔다. 또한 올해 정부 추경을 통해서도 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비 2조 4천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에 여념이 없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먹거리를 놓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이철우 도지사가 영상회의를 통해 직접 시장·군수들에게 정부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시군에서도 국비 확보에 힘 써주길 지시한 것이다.

그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지사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국비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 하는 발품 행정으로 예산확보의 큰 결실을 맺어왔었다.

이 지사는 “예산은 발품을 팔수록 많이 확보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설명 및 부처 설득은 힘들어도 지역출신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꾸준히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벤처기업과		
		작 성 자	과 장	이 강 학	
			팀 장	김명제	주무관 류규혁
		연 락 처	054-880-2679		

경북도,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자금지원 특별 행정명령 실행

-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행정이행명령과 특별자금지원 설명 -

경상북도는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보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2일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10개 지점에 투입하고, 재단내에 보증심사 집중 처리실을 긴급 설치·운영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긴급조치 이후 하루 100~200건이던 보증심사 처리건수가 이미 500건을 넘어서고 있어 경북도와 재단에서는 1일 최대 1,000~2,000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 조치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이행조치 (3.22)

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등) 전문인력 투입

② 보증심사 집중처리실 운영

③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 및 심사간소화

④ 보증심사 전담 업무제 운영

⑤ 특별 연장근로 집중 실시(근로조건 및 노사협의)

이와 관련 경북도는 24일 경북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과 외식·이미용·숙박·세탁 등 소상공인단체 대표 11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행정이행명령 내용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도 함께 했다.

정동식 경북상인연합회 회장은 “대출이 어려워 많이 힘들었는데 특별이행 조치에 감사드린다” 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석 한국외식업중앙회경상북도지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장의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주변의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도는 자금대출에 필요한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그동안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접수, 발급을 모두 했으나 7개 업무위탁 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상담과 접수를 담당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과 군부대의 인력 협조를 받아 집중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중한 우리 경북의 소상공인 여러분! 모든 기운을 모아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도지사의 권한을 총동원 긴급 행정명령으로 우리 경북 경제의 심장이자 중심인 소상공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챙기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분이 자금을 신청하시고 행정명령의 이행 체계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지원조치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북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이재석 지회장,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윤 지회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최성회 지회장,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경상북도지회 김용순 지회장, 한국이용사회중앙회경북지회 배홍직 지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경북지회 정태랑 지회장, 한국피부미용사회 경북지회 박영순 지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경북지회 홍종기 지회장,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 권종근 이사장, 세탁업대구경북지회 최재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긴급 행정명령

- 소상공인 지원 긴급조치, 시도중 선제적 대응, 지역 소상공인 최대수혜 목적 -

○ 현재 정부와 경상북도가 긴급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함**

○ 道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신청을 다 처리해내지 못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道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함

○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

- 필요한 추가인력을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추가투입 계획

○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긴급설치해 최우선 처리**

- 별도 전담 사무실 구성하고 파견된 은행·농협 전문인력 우선 투입

○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서 **하루 1천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전국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적인 긴급조치 내용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이행조치(3.22)

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등) 전문인력 투입

② 보증심사 집중처리실 운영

③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 및 심사간소화

④ 보증심사 전담 업무제 운영

⑤ 특별 연장근로 집중 실시(근로조건 및 노사협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개 요

○ 일　　시 : 2020. 3. 24(화) 11:10~

○ 장　　소 : 접견실

○ 참석대상 : 20명 내외(도지사포함)

- 외식업, 휴게음식업, 떡류식품가공협회, 이·미용실, 피부샵, 숙박업, 세탁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내 용

○ 행정이행명령(3.22) 설명

○ 소상공인 자금지원 계획

○ 특례보증 신청 절차 설명

○ 경북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 발급계획

시간계획

시 간 별		내　　용	비 고
11:10~11:20	10′	○ 간담회	접견실
11:20~12:00	40′	○ 브리핑 참석	도지사 외 소상공인연합회
12:00~13:00	60′	○ 오찬	구내식당

참석자 명단

순번	기관명	직위	성 명	연락처
1	한국외식업중앙회경상북도지회	지회장	**이재석**	(사) 053-742-0406 (H) ***-****-3837
2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지회장	**최성회**	(사) 054-431-3967 (H) ***-****-6633
3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경상북도지회	지회장	**김용순**	(사)053-811-5789 (H) ***-****-1237
4	한국이용사회중앙회경북지회	지회장	**배홍직**	(사) 054-455-1340 (H) ***-****-1204
5	대한미용사회중앙회경북지회	지회장	**정태랑**	(사) 053-745-2820 (H) ***-****-1449
6	한국피부미용사회 경북지회	지회장	**박영순**	(사) 053-853-6454 (H) ***-****-7913
7	대한숙박업중앙회경북지회	지회장	**홍종기**	(사) 054-432-6999 (H) ***-****-1263
8	대한숙박업중앙회 문경지부	지부장	**최대식**	(H) ***-****-3934
9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권종근**	(사) 054-821-7847 (H) ***-****-3502
10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이상윤**	**(H) ***-****-0072**
11	경상북도포항시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장	**공재덕**	**(H) ***-****-7093**
12	경상북도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장	**김경호**	(H) ***-****-7991
13	경상북도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장	**서형석**	**(H) ***-****-5051**
14	세탁업대구경북지회	부회장	**최재술**	(H) ***-****-6466
15	경북상인연합회	회장	**정동식**	(H) ***-****-7099
16	경북상인연합회	부회장 (영주소백산물산 회장)	**강복대**	(H) ***-****-7050
17	경북상인연합회	부회장 (안동구시장 회장)	**정유성**	(H) ***-****-3378
18	경북상인연합회	문경중앙시장	**최원**	(H) ***-****-2392
19	경북상인연합회	예천상설시장	**안호**	(H) ***-****-1779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백승모	주무관 제갈승
		연락처	054-880-3317		

코로나19 현장의 행복 비타민! 컵(cup)과일 인기!!

- 경북도 9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도 생활치료센터에 컵과일 공급 -
- 바쁘고 답답한 코로나19 시설에서 산소 같은 역할 톡톡!! -

코로나19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도 매일 기다려지고 꿀맛 같은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있다. 바로 컵(cup) 과일이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9일부터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6개소와 도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간식으로 컵과일을 공급하고 있다.

도내 학교급식용 지정업체에서 생산된 컵과일은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에게 매일 2,400개씩 공급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컵과일 공급을 위해 지난해 화성산업(주)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5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사용하여 이달 말까지 컵과일 공급에 사용하기로 한데 이어, 다음 달에는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연한 2,100만원을 컵과일을 공급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컵과일을 공급받은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는 “환자 치료와 돌봄 시간 외에는 외출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없어 무료한 생활이 계속 되는데, 매일 들어오는 컵과일이 산소 같은 역할로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을 전해주고 있다” 면서, “내일은 어떤 과일이 들어오는지 기다려진다” 고 했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 관계자는 “컵과일 공급이 끝나면 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컵과일을 구매할 계획이다” 면서 언제까지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문의가 올 정도로 컵과일에 대한 인기가 높다.

경상북도는 당초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용 컵과일의 판매가 어려워 개학시까지 코로나19 의료기관에 컵과일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컵과일에 대한 인기가 높고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 의료기관도 많아 향후 기부금 및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의료기관에 충분한 컵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료 관계자나, 환자의 입맛에 맞도록 다양한 과일을 조합한 컵 과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작 성 자	과 장	김 규 율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연 락 처	054-880-2613		

경북 사회적 경제.... 희망을 나르다!

- 기부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희망꾸러미’ 1억3천만원 상당 제작·전달 -
-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성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에 다수의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의 기부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기부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희망꾸러미’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다.

희망꾸러미는 경북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현장의 의료진이나 코호트 격리시설, 취약계층 등 제공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의료종사자 등 지원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간식으로 구성된 감사키트와 코호트 격리시설의 입소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등 크게 2가지 종류로 제작하고 있으며,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꾸러미는 지역 기업의 매출도 올리고,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와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기부금 전달방식이며,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한다.

희망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전달을 위해 제품 구매 및 포장, 배송 등은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 3천만원 상당의 희망꾸러미를 제작·전달했다.

지난 5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생필품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2천만원

(300세트) 상당을 경주시 취약계층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의료원 및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종사자를 위한 간식키트 1천만원(1,540인분) 상당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이 모금한 1천만원을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150박스를 구입하여 경주시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주식회사 케이티 경북본부와 본사에서 200만원 상당의 감사키트와 6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2천세트를 기부했으며, 24일에는 경북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에서 모금한 2,160만원을 320박스의 구호키트로 제작하여 안동푸드뱅크에 전달했다.

30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작한 마스크와 손세정제로 구성된 위생키트(1천만원 상당)를 협력업체 108곳에 배부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공공과 민간,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경상북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며, 상생을 통해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회적경제의 모범상을 확립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성자	과 장	조 환 철	
			팀 장	김진윤	담당자 손민정
		연 락 처	054-880-3363		

경북도,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긴급 특판 할인행사 실시

- 2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울진 하나로마트에서 감자, 미나리 등 50톤 판매 -

경상북도는 24일부터 31일까지(8일간) 경주, 울진 하나로마트 본점 및 남울진 하나로마트에서 친환경농산물 홍보·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특판 행사는 (사)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관으로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선 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 외식·행사 취소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품목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산 무농약 감자와,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소비가 위축된 청도산 무농약 미나리 2개 품목이다. 앞으로 행사기간과 행사장소를 대구 대백프라자 등 대도시 소비지로 확대하고 행사품목도 제철 신선채소 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자는 시중가보다 47% 저렴한 800원(kg), 미나리는 5% 저렴한 9,000원(1kg)에 판매한다. 구매자에게는 홍보 확대를 위해 판촉용 감자나 미나리를 추가 증정할 계획이다.

행사에 공급되는 친환경 감자와 미나리는 총 50톤으로 그 중 감자 21톤은 경기도 소재 농업회사법인 대화푸드리아와 사전 납품계약('20.3.19.)을 체결해 물량소비는 물론, 어려운 농가의 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북도는 9일부터 도청, 시군,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행사, 사이소, 피해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통해 20일까지 1,254백만원을 판매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사는 학교 개학시까지 계속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은 영천, 청도 등 미나리 주산지 시군의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우리 도(道)에서 건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한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농협몰 등을 통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에서도 19일부터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농산물 팔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판로확보가 힘들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작 성 자	담당관	박 정 서	
			팀 장	장진석	주무관 정성문
		연 락 처	054-880-2225		

법인지방소득세 4월에 신고, 7월에 납부 하세요!

-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직권! 그 외 지역은 신청에 의해! -

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나, 대부분의 법인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우리도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 '18년에는 총 34,838건(전자신고 34,685건, 방문신고 153건), '19년에는 총 36,167건(전자신고 36,046건, 방문신고 1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자	과 장	정 진 환	
			팀 장	방주문	주무관 황영석
		연 락 처	054-880-2812		

경북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실국장 비대면 영상회의로

- 실국장 대면회의 대신... 실국장 자리에서 PC로 영상회의 -

경상북도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다. 도는 도청 원융실에서 매일 10시에 개최하던 ‘코로나19 대응 실국 보고회’를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이다.

도는 그 동안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종식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회의인 ‘코로나19 대응 실국 보고회’를 대면형태로 개최해왔다. 손소독 후 입장, 회의장 마이크 위생 덮개 사용 등 회의장과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왔으나, 밀폐되고 밀집도가 높은 만큼 집단 감염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실국장 자리에서의 개인 PC를 이용한 영상회의로 경북도가 추진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직원에 대한 1/2 재택근무와 구내식당 투명칸막이 설치, 실국별 외부식당 이용 요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공여부가 코로나19 사태 진정 국면으로의 사활이 걸린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희 주	
			팀 장	이재식	주무관 강기홍
		연 락 처	054-880-3417		

축산단체 및 관련업체, 코로나19 극복 성금 연이어 전달

- 축산단체(양봉협회 경북도지회, 대구경상산란협의회)와 사료업체(우성사료, KCFEED)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전달 -

코로나19 위기를 이웃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축산농가와 관련업체의 따뜻한 손길이 연이어 계속 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지회(회장 박순배)와 대구경상산란협의회(회장 이창길), ㈜우성사료(대표 한재규), ㈜KCFeed(대표 정한식)는 24일 도청을 찾아 십시일반 모은 5천 1백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꿀스틱, 구운계란, 손소독제)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 기증내역 :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지회 12백만원(현금 10백만원, 꿀스틱 2백만원(2,400개))
대구경상산란협의회 19백만원(현금 3백만원, 계란 및 손소독제 16백만원(각 1천개))
㈜우성사료 10백만원, ㈜KCFeed 10백만원

이번 성금은 경북 내 코로나 19 예방에 필요한 방역물품과 의료 지원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축산단체와 사료업체의 대표자들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 확산방지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며 “코로나의 조속한 종결과 피해 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달 들어서 한돈을 시작으로 낙농, 한우 등 도내 축산농가들의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축산관련업체 코로나 19 극복 성금 전달

축산농가(양계·양봉) 및 사료업체(우성사료·KC-Feed)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경북사회공동모금회에 **51백만원**(현금 33백만원, 물품 3종 18백만원)상당의 **성금 전달**

행사개요

○ 일　　시 : 2020. 3. 24(화) 14:40

○ 장　　소 : 지사님 접견실

○ 주최/주관 : **양봉협회 경북도지회, 대구경상산란협의회, 우성사료, KC-Feed**

○ 참 석 자 : 5명 정도

- **지사님**, 양봉협회 경북도지회장, 대구경상산란협의회 회장, 우성사료 대표이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증내역

○ 기증물품 : **51백만원(현금 33, 꿀스틱 2, 구운란 9, 손소독제 7)**

- **양봉협회 경북도지회 12백만원**(현금 10, 꿀스틱 40박스(2,400개/15g))
- **대구경상산란협의회 19백만원**(현금 3, 구운란 1천판/30개, 손소독제 1천개/500㎖)
- **우성사료 10백만원**(현금 10), **KC-Feed 10백만원**(현금 10)

○ 기증대상 : 경북지역내 코로나-19 감염환자관리 지정병원 등

경북 양봉협회, 대경산협, 사료업체 현황

① **양봉협회 경북도지회**(통계청 기준)
- 회　　장 : **박순배**(경산, 250군 사육)　- 회원수 : 1,800명(전국 16,557명)
- 사육현황('19.9) : **5,020호, 428천군**(전국 2,462천군의 20.7%, 전국 1위)

② **대구경상산란협의회**(사육수수 : 7백만수)
- 회　　장 : **이창길**(김천, 7만수 사육), - 회원수 : 28명(대구, 경남, 경북)
- 사육현황('19.12) : **341호, 24백만수**(전국 173백만수의 14.1%, 전국 4위)

③ **우성사료**
- 대표이사 : **한재규**(직원 : 76명)
- 년생산량 : **114천톤**(경북생산량의 **8%**)　- 경북지사장 : 민승기

④ **KC-Feed**
- 대표이사 : **정한식**(직원 : 100명)
- 년생산량 : **143천톤**(경북생산량의 **10%**)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조 영 숙	
			팀 장	이우경	주무관 문의영
		연 락 처	053-320-0285		

4-H 정신으로 지역사회 아픔 함께 나눠!

- 경상북도4-H본부 및 연합회, 지역 방역소독 지원 및 기부금 전달 -

농업인학습단체 4-H본부 및 연합회는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4-H본부(회장 황병도)는 4-H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된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경북도청에 기부했다.

또한 경주시 200만원, 안동시 300만원, 의성군 500만원, 성주군 100만원 등 지역4-H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성주군, 울진군 청년농업인4-H연합회는 드론, SS기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의료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병도 경상북도4-H본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아픔을 나누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4-H회원 및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4-H정신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벤처기업과		
		작성자	과 장	이 강 학	
			팀 장	김명제	주무관 신재선
		연 락 처	054-880-2681		

서울시 대구·경북 중증환자 수용... 감사합니다!

- 실리리안 기업 ㈜신우피앤씨, 서울공동모금회로 200만원 상당의 실버위생용품 기증 -

경북 칠곡에 위치한 ㈜신우피앤씨(대표 : 김종호)는 코로나19 확진 대구·경북 중증환자들을 수용해 치료하고 있는 서울시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성인용 기저귀 등 자사에서 생산한 실버위생용품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경북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도 300만원 상당의 실버위생용품을 기증했다.

서울 국립병원 등에 이송된 환자들은 대부분이 기존에 기저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환자들로 실버위생용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용 기저귀는 건강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신우피앤씨의 기증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고 알려졌다.

김종호 ㈜신우피앤씨 대표는 “유래 없는 전염병으로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들은 모두들 자기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역의 환자들을 받아주셔서 감명을 받아 경북의 대표브랜드인 실라리안 기업으로서 기증을 하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적극 동참하겠다” 고 말했다.

㈜신우피앤씨,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실버위생용품 기증

❑ 개　　요

○ 일　　시 : 2020. 3. 18(수)

○ 장　　소

- 서울지역 :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동부의료원, 북부의료원
- 경북지역 :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 방　　법 : 위생용품 직접 전달 (3.18 - 서울, 경북)

❑ 기부내용

○ (서울) 기부금액 2백만원

- 카네이션 속기저귀 / 겉기저귀 / 깔개매트 / 물티슈 (총 800 PACK)
- 기부처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경북의 '코로나 19' 확진자 서울에서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로 기증

○ (경북) 기부금액 3백만원

- 카네이션 속기저귀 / 겉기저귀 / 깔개매트 / 물티슈 (총 1,260 PACK)
- 기부처 :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 ㈜ 신우피앤씨 현황

○ 대표자 약력

	일반현황	· 회사명 : ㈜신우피앤씨　　· 설립년도 : 2006년 · 소재지 :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24-23
	등록제품	· 실버 · 여성 · 생활 위생용품
김 종 호	특이사항	· 실라리안 선정 : 2009년 2월 · ISO 9001/14001,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 클린사업장 · 국내특허등록(10건), 실용신안등록(1건), 국내상표등록(1건)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3. 24(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서 장 환	
			팀 장	정병영	주무관	도한욱
		연 락 처	054-880-7752		

경북도, ‘日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독도왜곡’ 규탄

- 일본, ‘독도,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합법적 편입’ 등의 도발적인 기술 되풀이 -

“일본은 교과서 ‘독도 왜곡’ 즉각 시정하라”

경상북도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 검정에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전종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도는 이날 규탄성명서 통해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이어 2021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시마네현의 합법적 편입’ 등의 도발적인 기술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 하려는 망동으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토야욕의 표출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침략적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도발행위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저해하는 바,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 사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고 “이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과거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등 부당한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 하려는 망동으로, 동북아 평화는 물론 한·일 양국간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비교육적 행위로서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

땅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확고한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영토야욕을 표출하는 것은 과거 식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도발 행위로써,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침략적 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만이 인류 공영의 길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0년 3월 2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